

챔피언스 투어 선수분과위원회 안내사항 및 투어 선수 에티켓

I. 선수분과위원회 안내 사항

1. 벙커 미정리: 선수분과위원회 자체 벌금 30만원
 2. 피치 마크 수리: 반드시 수리를 완벽히 마친 후 경기 진행
 3. 자외선 차단 마스크 착용 제한: 최종 라운드(FR)에 한함
- ※ 위반 시 상벌분과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II. 투어 선수 에티켓

■ 주최사, 대회 관계자에 대한 에티켓

1. 대회를 유치해 준 주최사와 대회 장소를 제공해 준 골프장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
2. 주최사, 골프장, 경기위원회, 사무국 임직원에게 항상 예의를 갖춘다.
주최사, 골프장, 경기위원회, 사무국 임직원과 상호간의 예의를 지킨다.

■ 대회 시 지켜야 하는 에티켓

1. 기본 사항

- 가. 복장을 단정히 하며, 매너와 에티켓을 지킨다.
- 나. 갤러리 유무와 관계없이 프로골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취한다.
- 다. 경기를 함께 하는 동반 플레이어 및 경기보조원에게 예의를 갖춘다.
- 라. 플레이 전 프런트에서 라운드 비용(그린피, 카트피)을 결제하고, 플레이 종료 후 캐디피를 즉시 지급한다.

2. 대회 진행 관련 사항

- 가. 골프 룰 및 대회 규칙(대회요강 등)을 숙지한다.
- 나. 선수는 경기보조원을 관리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
- 다. 경기 진행에 유의하며, 슬로우 플레이는 금한다.
- 라. 룰을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고 의문점이 있으면 경기위원회에게 문의한다.
- 마. 디봇 자국은 반드시 메워 놓는다.
- 바. 벙커 내의 신발 자국이나 스트로크 자국은 반드시 고무래로 정리한다.
- 사. 땀은 깃대는 모든 플레이어의 공과 홀에서 떨어진 곳에 놓는다.
- 아. 그린 위의 공은 퍼터로 집어 올리지 않고 손으로 집어 올린다.
- 자. 볼의 낙하에 의한 손상된 볼 자국을 수리한다.
- 차. 샷 미스를 해도 클럽을 던지거나 풀을 두드리거나 하지 않는다.
- 카. 홀마다 사용한 골프 티는 꼭 수거한다.
- 타. 다른 이들에게 의문을 일으킬만한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

3. 대회 종료 후

- 가. 스코어카드에 반드시 서명 및 성적을 확인 후 제출한다.
- 나. 상대 선수 및 경기보조원에게 수고와 격려를 표한다.
- 다. 시상식 참석 대상자일 경우 시상식에 최대한 참석하여 우승자를 축하하고, 대회를 유치해 준 주최사 및 골프장 측에 감사 인사를 한다.

4. 기타 사항

- 가.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한다.
- 나. 연습그린에서 휴대폰 사용 및 통화를 자제하며, 뒷정리를 깔끔하게 한다.
- 다. 핀위치도 등 필요가 없게 된 용지는 휴지통에 버린다.

■ 골프팬, 언론에 대한 에티켓

1. 대회 중 갤러리의 응원이 큰 힘이 되나, 만약 코스에 갤러리가 없더라도 대회는 방송중계 등으로 수많은 골프 팬과 만나게 되므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프로골퍼로서 부끄럽지 않은 언행을 해야 한다.
2. 언론 인터뷰는 골프 팬들로부터의 질문이며, 흔쾌히 응해야 한다.
3. 언론을 대할 때에는 프로골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친절한 자세를 유지한다.
4. 인터뷰 할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임하고, 모자에 부착하는 후원사의 로고가 카메라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정리해야 하며,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반드시 수건 등으로 닦아내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좋다.
5. 인터뷰 시에는 올바른 골프 용어를 사용하며, 미디어에 부적절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6. 우승 세리머니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으므로 손을 들어 올리는 단순한 세리머니 보다는 스포츠 엔터테이너로서 본인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형태의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 좋다.
7.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인터뷰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거부해서는 안 된다.
8. 라운드 후 반드시 스코어카드를 먼저 접수하고 인터뷰 요청에 응해야 한다. 스코어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인터뷰 요청을 받거나 사진 촬영을 위한 포즈를 요청받을 때 스코어카드 접수 후 응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한다.
9. 인터뷰 된 내용은 반드시 미디어에 실릴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에는 신중히 생각하고 응대한다.
10. 인터뷰 시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고 프로다운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대해야 하며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기자들을 대해야 한다. 홀 바이 홀(Hole By Hole) 상황을 잘 기억해 둔다.
11. 인터뷰 시 경기위원회의 판정이나 경기진행(경기속도 등)에 대한 언급은 가급적 피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경기위원회에 직접 이야기한다.
12. 우승 소감에 대회를 유치해 준 주최사 측 대표와 대회 장소를 제공해 준 골프장 대표, 선수 후원사 대표, 방송사 관계자에게 감사의 멘트를 포함하여 말한다.